

2006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 및 하반기 경제 전망¹⁾

1. 2006년 상반기 중국경제 동향

가. 고성장세 지속

□ 2006년 상반기 중 중국경제는 10.9% 성장함으로써 최근 3년간 10%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함.

- 2006년 1/4분기 GDP성장률이 10.3%를 기록한데 이어 2/4분기에는 11.3%를 달성함.

- 각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 1차 산업이 5.1%, 2차 산업이 13.2%, 3차 산업이 9.4%를 기록함으로써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임.

나. 공업생산 성장세 뚜렷

□ 국내수요 부진, 불리한 대외여건, 생산능력 과잉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2006년 상반기 공업생산은 뚜렷한 성장세를 시현함.

1) 본 자료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스강(石康)주임이 2006년 7월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주최 한·중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6년 상반기 중국경제 형세 및 하반기 경제발전 전망>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임.
본문의 관점은 발표자 개인의 견해이며 거시경제연구원과 국가발개위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

- 2006년 상반기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39,98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7% 증가. 이 가운데 중공업은 18.5%, 경공업은 15.8%의 성장률을 보임.
- 특히 2005년에 생산능력 과잉일 것으로 예측했던 일부 산업의 성장세가 여전히 두드러짐. 2006년 상반기 철강재 생산은 25.8%, 자동차 생산은 27.8% 증가함.
- 2006년 상반기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제품 판매율은 97.4%에 달해 생산과 판매가 모두 양호한 형세를 보임으로써 공업기업의 이윤이 크게 늘어남.
- 2006년 1~5월 규모이상 공업기업 실현 이윤은 6,294억 위안으로 25.5% 증가.

다. 가격안정세 지속

-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표출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으나 2006년 상반기 가격안정세가 유지됨.
- 200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3%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상승폭은 1% 포인트 하락함.
- 도시 소비자물가는 1.3%, 농촌 소비자물가는 1.2% 상승함.
- 업종별로 볼 때 주택가격(4.7%), 식품가격(1.9%)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함.

라. 취업형세 양호

- 2006년 중국정부의 취업과 재취업 사업목표는 도시(城鎮)신규취업 900만 명 이상, 정리해고자 재취업 500만 이상인데 그 중 “4050”(4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 남성) 취업 100만 명, 도시(城鎮) 등록 실업률을 4.6% 이하로 통제하는 것임.

□ 2006년 1~3월 전국 누계 도시(城鎮)신규 취업자가 252만 명으로서 연간 목표치(900만 명)의 28%, 정리해고자 재취업 103만 명으로서 연간 목표치(500만 명)의 21%, “4050”의 재취업은 28만 명으로서 연간 목표치(100만 명)의 28%를 각각 실현함.

- 3월 말 전국 도시(城鎮)등록 실업률은 4.2%로서 연간 목표치 4.6%보다 낮은 수준임.

- 2006년 1/4분기 전국의 119개 도시 중 고용주가 노동시장을 통해 채용한 인원은 331.4만 명이 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구직자가 대략 344.1만 명으로 구인배율은 약 0.96임. 이는 전년 동기대비 구인배율(0.94)에 비해 다소 제고된 것임.

□ 현재 중국경제의 여건으로 볼 때 2006년 6월말까지 신규 취업인수와 정리해고자 재취업수가 연간 목표치의 절반 이상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2. 2006년 상반기 중국경제 견인 요인

□ 2006년 상반기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며 가격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함.

가. 경제의 기초여건 호조

□ 농업생산 증가

- 2006년 6월 말까지 전국 여름작물 총생산량이 1억 1,38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하였으며 육류의 총생산량도 3,60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함.

- 농업생산의 증가로 야채와 기타 일부 농산품 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산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물가안정에 기여함.

□ 생활용품 생산 증가

- 가정용 세탁기 및 냉장고, 설탕, 사(紗), 실크 작물 등 생활용품의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기본적인 주민생활 유지와 가격안정에 도움을 줌.

□ 에너지 생산 증가

- 2006년 1~6월 전력생산과 원탄 생산은 각각 1조 2,700억 kw/h와 9.6억 톤에 달해 각각 12.0%, 12.8% 증가함.
- 이에 따라 31개 성 가운데 2004년에는 26개 성이, 2005년에는 15~16개 성이 전력 부족을 겪었으나 2006년에는 4~6개 성에서만 전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나. 투자, 소비, 수출 등 수요 확대

□ 고정자산투자 증가 가속화

- 2006년 1~6월 전사회고정자산투자가 4조 2,371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29.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4% 포인트 상승함.
- 도시(城鎮) 고정자산투자는 3조 6,36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3%(증가율은 4.2% 포인트 상승)증가함.
- 산업별로 볼 때 경공업 투자는 41.2%, 중공업 투자는 32.6% 증가함으로써 경공업 투자증가 속도가 중공업에 비해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수요 성장

- 2006년 상반기 사회소비재 판매액은 3조 6,44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함.

- 지역별로 보면 도시의 소비재 판매액은 14%, 현 및 현급 이하 농촌지역의 소비재 판매액은 12% 증가함.
- 산업별로 보면 호텔 및 요식업 판매액 증가율(15.3%)이 도소매업 판매액 증가율(13.4%)을 앞섰는데 이는 중국의 주민소비구조 경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수출 신장세 지속

- 2006년 상반기 수출 증가폭이 전년 동기대비 7.1%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25.2%의 증가율로 여전히 성장세를 지속함.
- 2006년 상반기 수출구조의 특징을 보면 첫째, 외자와 민영기업의 수출 증가가 가속화됨. 둘째 기계전자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함.
- 셋째, 가방, 신발, 완구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수출 증가속도가 평균 증가속도보다 낮음. 넷째, 에너지 및 자원 소모성 제품, 환경오염 제품의 수출이 감소됨.

다. 거시정책 요인

-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및 통화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실제 거시정책은 비교적 느슨하게 집행됨.
- 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6월말 광의통화(M2) 공급량은 전년 동기대비 18.4%, 협의통화(M1) 공급량은 13.9% 증가하였으며, 신규 인민폐 대출금이 2.18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233억 위엔 늘어남.
- 국가세무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 조세 수입은 정부의 엄격한 세수 관리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2.3% 증가한 1조 9,332억 위안을 기록.

3. 2006년 상반기 중국경제의 문제점

가. 재정 및 금융리스크 가능성

- 지방의 투자 프로젝트는 모두 은행과 정부의 합작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에 소요되는 상당 규모의 대출금은 지방정부가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 및 공공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증한 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나.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의 어려움

- 최근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위반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서부지역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로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에너지 소모성 공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 2006년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를 4% 정도 낮추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다. 대외무역 흑자 및 외환보유고 확대

- 중국정부의 무역흑자 확대 통제에도 불구하고 2006년 상반기 대외무역 흑자규모는 615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218억 달러 늘어남.
- 대외무역 흑자의 확대로 인해 외환보유고 역시 크게 늘어났는데 2006년 6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9,411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 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화폐시장 안정 및 통화정책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라. 시장경제 메커니즘 왜곡

- 2006년 상반기 원자재, 에너지 가격은 6.1% 상승하였으나 공산품 출하가격은 2.7%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소비자물가 역시 1.3%의 상승률만을 기록함. 이는 생산능력 과잉으로 정상적인 가격 연동제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기업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를 내포함.
- 만일 이러한 문제가 갑자기 노출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현재 중국정부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한편, 독점적 요소가 강하거나 경쟁이 불충분한 부문에서는 과도한 가격전가나 정당하지 않은 연동추세가 존재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부당한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면 석유 및 정제유, 전력, 도시급수, 난방공급, 대중교통 및 민간항공 등의 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가격변동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는 불공평한 이익분배와 불합리한 소득격차를 초래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마. 취업압력 심화

- 대학 졸업자에 대한 취업압력과 구조적 모순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 문제, 농촌노동력 이전 취업 문제 등 지속적인 취업압력에 직면함.
- 2006년 전국 대학 졸업자 수는 2005년에 비해 22% 증가한 413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학 졸업자에 대한 고용 수요는 166만 5,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졸자에 대한 취업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2/4분기부터 국유기업이 운영하는 집체기업의 정리해고자가 40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실업자 수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들에 대한 재취업 압력이 예상된다.

- 2006년 약 900만 명의 농촌 노동력 이전 취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취업 서비스체계가 완비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임금 메커니즘이 불완전한 상태임.

4. 중국경제 문제점 원인에 대한 진단

- 2006년 상반기 중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형세를 시현함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음.
- 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표출되는 측면도 있으나 아직 시장경제 체제가 불완전하고 성장방식이 개선되지 못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가. 불완전한 금융체제: 유동성 과잉

- 최근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통화안정정책과 재정안정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표명과는 달리 대외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의한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누증과 상업은행의 대출팽창으로 유동성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대량의 자금이 연해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 팽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 불균형을 초래함.
- 중국정부는 이러한 유동성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리인상 및 지준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통해 유동성 과잉 문제를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함.

나. 지방정부의 고성장 계획

- 중국 각 지방정부의 “11.5”계획이 확정한 경제성장 속도는 중앙정부의 전체 성장속도보다 높

은 수준이며 각 지방은 대체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목표 하고 있는 전체 GDP증가율은 7.5%이지만 31개 성 “11.5”계획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0%이상으로 평균 2.5% 포인트 높음.

-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신규 프로젝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투자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의 고성장 계획을 중앙정부의 성장 목표와 어떻게 적절히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임.

다. 불균형적 성장방식 지속

□ “11.5”계획은 성장방식의 개혁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나 2006년 상반기에도 투자확대가 가속화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생산규모 확장으로 일부 산업의 생산능력 과잉 문제도 여전함.

- 과도한 투자확대는 단기에 생산능력 과잉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기초 원자재의 수요를 자극하고 나아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에 대한 정부의 목표 달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5.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가. 하반기 주요 경제지표 전망

□ GDP성장률은 1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연간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5% 내외로 추정되며 소비재판매액은 12%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상반기 가격변동 추이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2006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대외무역 총액은 20%증가하여 1.7조 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연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나. 경제과열 논쟁

- 중국경제는 1978년부터 27년 간 연평균 GDP성장률이 9.6%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세를 지속함으로써 경제과열 논쟁을 낳고 있음.
- 그러나 중국경제 특성상 고성장을 지속할만한 여지가 크고 경제의 급속 성장과 달리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성장률 자체만으로 경제과열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함.
- 현재 중국경제가 과열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인들이 중국경제 체제와 메커니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중국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조화로운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거시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다. 거시정책 방향

- 하반기에는 유동성 과잉과 급속한 투자확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금리와 기준율을 동시에 인상하고 공개시장 조작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정책방향과 시장형세 변화에 따라 상업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하반기에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
- 중국정부는 이미 발표한 “國 6條”와 9部委 “15條”를 엄격히 실시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주택공급구조를 변화시켜 중저가 주택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늘림으로써 중소득 계층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킬 것임.
- 장기적으로는 “공평 조세, 투기 억제, 복지 증대”를 부동산 산업의 발전목표로 설정하여 세제개혁을 완성하고 부동산 투기조작을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육성하도록 함.
-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세수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장행위를 규범화하고 수출입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소비세, 소득세 징수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것임.
- 중국정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토지가격 심사비준을 엄격히 시행함과 동시에 토지 수익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토지관리 제도 완비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중요 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청문회 제도를 규범화하여 공공정책 제정 및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임.
-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시설 투자규모와 정부투자 구조를 조정하고 공공서비스 및 농촌의 인프라시설 확대를 강화할 것임.
- 건전한 자본시장 양성을 촉진하고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함.

<질의·응답>

질문 1: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내외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성장률이 이보다 높을 경우 성장률을 낮추기 위한 중국정부의 조치가 있는가?

답변 1:

“11.5” 계획에서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정했으나 이는 과거 계획경제의 강제성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목표 기대치이며 거시정책 조정 방향을 의미하는 것임. 2006년 상반기 10.9%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거시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9~10%)보다 높은 수준임.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중심으로 변동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됨.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높은 것은 국내수요 확대와 수출의 증가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급속한 성장추진 전략과도 관련이 깊음. 중국의 취업난, 교육 발전, 사회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며 이는 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함. 따라서 지방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재정소득을 늘림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이 과정에서 자원파괴 및 환경오염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은행대출의 급속한 증대로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유발시킴.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체제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러한 체제적 문제는 단기 내에 해결하기 어려움. 또한 중국의 경우 금리조정과 같은 거시조정 조치가 여타 선진국과 달리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요인도 있음. 그러므로 중국경제를 조정함에 있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것임.

질문 2:

2006년 상반기 경제실적 가운데 가장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실적치는?

답변 2:

최근 2년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대외무역 환경이 이전에 비해 악화되어 대외무역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성장세를 지속함.

질문 3:

현재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은 인상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6년 1~5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실현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산능력 과잉 상황에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답변 3:

생산능력 과잉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생산능력 과잉을 판단하는 통일된 기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움. 일부 정부부문은 기존의 생산능력, 현재 생산능력, 비중을 받고 아직 작동하지 않은 생산능력을 모두 생산능력을 추산하는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는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판단됨. 기존의 생산능력 중 기술여건이 낙후되어 있거나 환경보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경우에는 생산능력 통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임.

생산능력 과잉 기업문제에 대한 해결도 매우 복잡한 상황임. 첫째, 생산능력 과잉 기업 가운데 낙후한 기업이 도태되면 취업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는 오히려 이런 기업을 보호하여 취업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강함. 다른 한편으로 토지, 자원 등의 요소가격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저기술 수준의 낙후된 기업도 저렴한 토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보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오히려 경쟁력이 제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임.

중국정부는 정책적으로 노동력이나 자원 등의 요소가격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수준이 낮은 낙후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책결정과 집행간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질문 4:

인민폐 평가절상 조치가 거시경제 과열을 조정하는데 적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가?

답변 4:

개인적 견해로 볼 때 어느 정도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여지가 있으나 급속한 평가절상은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인해 일본경제가 10여 년간 장기침체에 빠진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중국은 경제발전 과정상 존재하는 문제를 환율조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민폐 평가절상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질문 5:

부동산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며, 부동산 투자의 개념은 무

엇인가?

답변 5: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국가통계국의 지표로 볼 때 일반 주택 투자, 분양주택 투자(임대용 포함), 오피스 투자 및 일부 임대용 공업용 창고를 포함하고 있음. 이 가운데 언론이나 대중들이 주목하는 부문은 일반 주택 투자이며 일반 주택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정도임.

질문 6:

은행의 대출 중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답변 6:

현재 중국정부의 관련법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은행대출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투자은행과 같은 대규모 은행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그 지방에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공여하고 있음. 이러한 은행대출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기업이 사용하며 만일 그 기업이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지방정부가 상환해야함. 즉, 지방정부는 직접 은행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대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기업의 대출 상환을 담보함. 현재 은행과 지방정부 모두 대출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은행대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